

## 폭염 대비 가축 피해 막는다..고온기 대응 '현장기술지원단' 가동

- 5~8월 고온 취약지역 중심 맞춤형 기술지원 추진
- 고온 스트레스 저감 기술·사양관리·시설 개선 현장 적용 지원
- 더위 지수 정보·기술자료 보급으로 선제 대응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름철 폭염으로 발생하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고온기 대응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해 농가 어려움을 돕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축종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이 고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사양관리, 축사·환경개선, 환기·급수 관리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기술지원단은 효율적인 송풍기·환기팬 가동 방법, 차광막과 단열재 설치 방법, 안개 분무 장치 활용 방법 등 축사 온도를 낮추는 환경개선 기술을 중심으로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급수량 확보와 급여 시간 조절, 사료 급여 횟수 분산 등 가축의 체온 상승을 낮추기 위한 사양관리 기술도 함께 지도한다.

폭염 대비 축종별 핵심 관리 기술로, 한우는 충분한 급수와 함께 사료 급여 횟수를 늘려 섭취량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 젖소는 체온 상승에 따른 유량

감소를 줄이기 위해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돼지는 급여 횟수를 나누어 사료 섭취를 유도한다. 닭·오리는 사육 밀도를 낮추고 음수량 증가에 따라 급수 관리를 중점적으로 한다.


현장기술지원단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고온기 대응 기술의 현장 적용도 지원한다. 거세 한우 비육 후기 단계에는 고온 스트레스 저감용 사료 첨가제를 적용하면 증체 및 육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시범 사업을 통해 등심단면적 증가와 근내지방도 개선 등 생산성 향상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가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서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가축더위지수(THI)' 기반 사육환경 관리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온도와 습도에 따라 가축이 실제 체감하는 스트레스를 수치화한 지수, '양호'부터 '심각'까지 5단계로 위험도를 나누고 있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고온기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계획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소영 (063-238-7200)
		담당자	지도사	이경은 (063-238-7207)
				

## □ 목 적

-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대비 가축 및 축사 피해 예방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사후관리 및 가축 사양·시설관리 집중 기술지원

## □ 추진 개요

- 기 간: '26. 5~8월(기상 상황에 따라 9월까지 탄력적 운영)
- 대 상: (사전)수요 조사 지역 + (사후)폭염·집중호우 피해지역
  - 폭염 취약 축종(닭, 돼지 등) 및 집단 폐사 발생 우려 농가 우선 지원
  - 실증시험·시범 사업 농가(운영 기간 내 상시 지원)
    - \* 방역 상황 등으로 현장 방문 불가 시 '비대면 사전 자료 제공' 으로 대체
- 방 법: 중앙-지방 연계 합동 현장기술지원단 운영(5개 권역, 권역 별 4~5회)
  - (중앙) 축종·분야별 내부 전문가와 퇴직 전문 인력(53명)에서 구성
  - (지방) 도원·특광역시군센터 축산 담당자

## □ 주요 내용

- (현장기술지원) 폭염 및 집중호우 전·후 축종별 맞춤형 사양, 축사 관리
- (기술자료제공) 고온기 대비 가축관리기술서(3,000부) 및 축종별 핵심 관리 기술 안내책자(리플릿)(3만부, 3개 국어 번역)을 제공하고,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사용 홍보
- (상황공유체계) 지방 담당자 네트워크 활용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